



낭만의 밤, 힐링의 봄 함께 즐기기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해남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열린 '땅끝바다 캠핑 페스티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캠핑러들이 설치한 갖가지 모양의 텐트들과 밤하늘에 띄워진 열기구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캠핑 기간동안 이곳에서는 해남농수산물을 이용한 캠핑요리 경연대회, 카약과 승마 등 레저체험, 나전칠기와 별자리 관찰 등 문화체험, 해남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해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다채로운 행사

승마·카약·인력거에 캠핑요리대회까지...“알차고 풍성했다”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린 지난 29일, 해남군이 주최하고 경주일보·전라남도·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한 '땅끝바다 캠핑 페스티벌'이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펼쳐져, 이곳을 찾은 수많은 캠핑러들이 해남의 맛과 멋을 만끽했다.

'자연과 하나 되어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핑페스티벌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2박3일 동안 해남 오시아노 해변에서 ▲추억마당 ▲공감마당 ▲힐링마당 ▲낭만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추억마당은 2인승 카약과 승마체험 등으로 구성된 레저체험, 나전칠기 기념품 만들기, 인력거 타기 등 문화체험, 캠핑장비 시연 및 캠핑요리 대회 등 전문강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공감마당은 해남의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행사가 진행되는 2박3일 동안 주무대광장에서 해남군민들이 직접 재배한 고구마와 연근 등 다양한 캠핑관련 음식재료를 홍보하고 저렴하게 판매했다. 또한 해남군 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40명을 초청해 캠핑요리대회 등을 함께했다.

힐링마당은 전문해설사와 해남 우항리 해남공룡박물관을 돌아보는 것으로 사전에 신청한 600여명을 4개 조로 나눠 진행했다.

낭만마당은 축제 참가자들이 줄다리기를 통해 단합할 수 있도록 주무대광장에서 진행됐다. 다채로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성황을 이룬 것은 카약과 승마 체험이었다.

전라남도레저스포츠협회는 축제장을 찾은 이들에게 이색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2인승 카약 19대를 준비했다. 29일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 진행된 카약체험에는 하루 종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줄이 이어졌다. 지난 28일부터 캠핑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이

달상(광주 화정동 46)씨는 "집에서는 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카약을 타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면서 "캠핑을 하러 와서 카약도 하고 물놀이도 즐길 수 있어 대만족"이라고 말했다.

전남레저스포츠협회 관계자는 "처음에는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카약을 10대만 준비하려다가 혹시 몰라서 19대를 준비했다"면서 "참가자들이 카약에 관심을 보여 미리 준비한 장비가 부족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고 밝혔다.

알록달록 우의를 입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은 곳은 승마체험장이었다. 말에 탄 채 봄 바람 불어오는 아름다운 오시아노 해변 산책로 약 200m를 걸을 수 있어 단연 인기 코스였다. 대불승마장 회원들은 29일 캠핑축제장을 찾은 이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선사하기 위해 한라마와 포니 등 5마리 말을 준비했다.

캠핑축제 첫날부터 참여했다는 류경원(8)양은 "엄마, 아빠와 캠핑을 하러 왔는데 말을 직접 타볼 수 있어 신기했다"며 "가족들과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는 캠핑을 앞으로 자주 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승마체험장에 아이들이 많았다면 반대편 산책로에서 운영된 인력거체험장은 연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사업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피인력거'는 지난 2012년 7월 인력거 2대로 시작해 지금까지 1만여 명을 태우고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달렸다. 아피(아피는 오랜 친구라는 뜻)인력거를 좀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날 서울에서 내려온 이재훈(28)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인력거를 타는 문화가 거의 없어서인지 체험객들의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며 "사람을 속삭이는 연인들을 태우고 아름다운 해변을 달릴 수 있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해남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열린 '땅끝바다 캠핑 페스티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캠핑러들이 갖가지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위로부터 승마 체험·카약 체험·인력거 타기. /해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모저모

천혜의 경관·푸근한 인심에 잊지 못할 추억 한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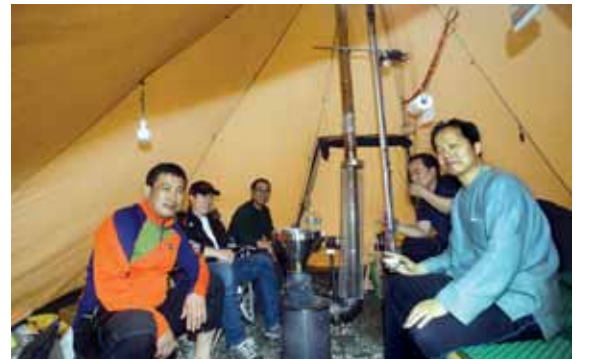
■목포캠핑클럽의 후기

"진정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비나 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추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캠핑'이 아닐까요."

목포캠핑클럽 전범(43) 매니저는 축제 기간 동안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남군민들의 푸근한 인심 덕분에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6월 시작된 목포캠핑클럽은 전국적으로 1600여 회원을 지닌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캠핑클럽이다. 캠핑 페스티벌을 찾은 200여명 회원들은 지난 28일 축제 기간 첫날부터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캠핑을 즐겼다.

목포 캠핑클럽 최용대(무안 남암 45)씨는 초보 캠핑러들에게 장비에 연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캠핑이 활성화 되고 갖가지 캠핑용품들이 등장하면서 꼭 좋은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시작하면 캠핑의 매력을 제대로 알기 전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포기하기 쉬워요. 장비를 사기 전에 캠핑장을 직접 찾아 무엇이 꼭 필요하고 어떻게 즐기는 지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요즘은 꼭 필요한 장비만 갖춰



해남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에서 열린 '땅끝바다 캠핑 페스티벌'에 참가한 목포캠핑클럽 회원들이 텐트 안에서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얘기 나누고 있다.

떠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예요." 클럽 회원 최용대(목포 옥암동 45)씨는 오시아노 관광단지 캠핑장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캠핑페스티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승마와 카약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지만 정작 중요한 화장실이 부족해서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해변에 탈의실을 따로 갖춘 화장실이 있지만 너무 밀고 크기도 작아서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캠핑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장실과 개수대라는 점을 축제 관계자들이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300만원 들여 1t트럭 개조, 온가족 즐기는 캠핑카로

■허중수씨 '자작캠핑카' 눈길

캠핑페스티벌이 펼쳐진 오시아노 해변 일대에는 캠핑카와 캐리밴(CARAVAN)등 수십대의 캠핑용 차량이 캠핑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 중에는 허중수(나주 영산동 36)씨의 '자작캠핑카'가 캠핑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의 캠핑카는 1t트럭 화물칸에 5인 가족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제 패널로 만든 작은 집을 고정한 형태다. 2주간 제작비 300만원을 투자해 만든 그의 캠핑카는 조명시설과 전기장판 등을 갖춰 5인 가족이 둘러 앉아 밥을 하고 잠을 자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은 이 공간을 '집'이라고 불렀다.

생수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허씨는 자신이 타는 화물차를 활용해 지난해 11월 세상에 한대뿐인 캠핑카를 만들었고, 곡성 도립사, 나주 승촌보 등을 찾았다. 지난해 자신만의 캠핑카를 갖게 된 후 10번째 여행이라는 그는 캠핑에 대한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이 차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제가 캠핑을 무척 좋아하는데 어린 아이가 3명이다보니 먹고 자는 부분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너무 비싸지 않은 캠핑카를 고민하다가 직접 만들게 됐어요. 제가 생수를 배달하기 때



1톤 화물차를 개조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캠핑카로 만든 허중수씨 가족.

문에 화물차와 지게차가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집안에 생수통을 싣고 배달하고, 주말에는 집을 싣고 아이들과 캠핑을 떠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는 캠핑카가 놀이터이자 집이 된 셈이죠."

부인 이수연(29)씨도 아이들과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캠핑카가 생겨 삶의 활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캠핑의 매력을 알기 전에는 눈 내리는 겨울날 야외로 떠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과 자작캠핑카로 여행을 다니면서 언제든 쉽게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캠핑을 좋아하고 화물차가 있는 분들이라면 자작캠핑카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인터뷰 - 박철환 해남군수



“캠핑문화 최적지...에코 휴양·힐링 관광 새 출발점으로”

"해남을 에코 휴양지로, 힐링 관광지로 조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번 캠핑축제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가족 중심의 캠핑문화가 대중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계기로 해남에서 캠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박철환 해남군수는 '땅끝바다 캠핑 페스티벌'을 유치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남이 캠핑을 위한 천혜의 장소라고 말했다. 박 군수는 해남 송호리 오토캠핑장을 비롯해 가학산 휴양림과 황토나라테마촌 등 다양한 곳에서 자연을 벗 삼아 캠핑을 즐길 수 있고, 오토캠핑장의 경우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 7대 캠핑장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남군은 가학산 휴양림에 치유의 숲을 조성해 바

쁜 일상에 지친 이들의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중이다. 또한 황토를 주제로 황토나라테마촌을 운영하는 등 특색 있는 캠핑촌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 군수는 앞으로 관광과 체험을 결합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해남에 오면 캠핑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유산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번 캠핑 페스티벌에서 열렸던 해남농수산물 캠핑요리대회처럼 지역에서 재배한 특산물이 무엇이고, 해남의 진정한 맛은 무엇인지 알려겠습니다. 캠핑을 위해 해남을 찾은 이들이 아름다운 풍광과 푸짐한 인심을 느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